

정서조절곤란이 흡연동기와 니코틴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흡연자를 중심으로*

임 규 영[†]

정 진 복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간의 관계에서 흡연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흡연 동기는 측정도구의 5가지 하위요인을 모두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 195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 흡연동기, 니코틴의존을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동기의 5가지 하위요인 중 휴식 및 지루, 습관적 흡연 등 2가지 하위요인은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적 정서통제, 지적 자극, 사회적 매력 등의 하위요인들은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이 휴식 및 지루, 습관적 흡연의 흡연동기에 의해서 니코틴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서조절곤란, 흡연동기, 니코틴의존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규영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01369)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
길 33 / E-mail : gylim@hanmail.net

청소년들의 울적한 기분, 불행하다는 느낌은 아동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곽금주, 문은영, 1993), 부정적 정서인 공포, 불안, 죄책감, 분노 및 수치심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휘숙, 2009). 발달상 청소년기는 정서강도는 높지만, 정서조절기술은 미숙해서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Ernst, Pine, & Hardin, 2006), Gladwin, Finger, Crone과 Wieres(2011)에 따르면 동기부여, 통제과정 등에 관여하는 뇌 발달의 차이 때문에 생애발달의 다른 시기보다 중독적인 행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강도 높은 정서 및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최성환, 최해연, 2014). 실제로 청소년들은 내재화와 외현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 행동적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이원화, 이지영, 2011;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Silk, Steinberg & Morris, 2003), 이는 정서조절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능력이나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은 우울 및 불안, 문제행동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김민아, 권경인, 2008; 문영주, 좌현숙, 2008;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임진현, 이훈진, 2006; 한선화, 현온강, 2006; 홍경화, 홍혜영, 2011; Garnefski, Kraaij & Etten, 2005; MacLaughlin et al., 2011; Silk et al., 2003).

정서조절의 실패가 만성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Cole, Michel과 Teti(1994)는 정서조절장애(emotional dysregulation)라고 명명하였다(이현주, 하은혜에서 재인용, 2016). 정서조절

장애는 개인의 인지적인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과 정신병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Garber & Dodfe, 1991; Kring & Werner, 2004;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또한 Greenberg(2002), Gross(1999) 등 여러 심리치료자들은 정서조절의 실패를 정신병리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치료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정서조절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정신병리의 발생, 유지 및 치료와 관련하여 정서조절과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서조절곤란과 정신장애를 다룬 연구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조용래, 2007). Gratz와 Roemer(2004)는 이러한 이유가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부족하고, 정서조절곤란이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해줄 수 있는 측정도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의 정의를 제안함과 동시에,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라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정서의 자각과 이해, (2) 정서의 수용, (3)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4)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유효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다.

보건복지부(2017)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청소년 흡연율은 6.4%

로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인 23.9%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08년 12.8%에서 점차 감소되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금연치료와 교육에 의해서 흡연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보다 위험성이 더욱 높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중독적인 흡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임영식, 이장한, 김선일, 함진선, 2003). 게다가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청소년일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할 가능성이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8). 따라서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이 만성적인 흡연의 연결 고리를 끊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겠다(이상균, 2001).

이와 같이 청소년 흡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한 흡연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행동들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석 및 성적하락 등의 학업문제와 학교 폭력이나 학교활동에 불참하는 문제, 고 위험성행위, 자살 및 범죄, 다른 약물남용, 알코올 의존과 사망 등이 흡연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엽, 이근영, 2010; Torabi & Bailey, 1993)는 점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이다(송태민, 이주열, 안지영, 2010).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복합물질 가운데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니코틴에 습관적으로 중독되면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약물을 찾

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의존(dependent)이란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약을 중단하면 특징적인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어린 연령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더욱 강하게 니코틴에 중독된다(Surgeon General's Report, 1994: 임영식 등에서 재인용, 2003).

한편,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심리-사회적, 연령 등과 같이 다양한 변인들이 니코틴 의존과 관련이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들이 있다. 김진곤 등(2012)의 연구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는데, 스트레스, 우울, 양극성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니코틴 의존과 상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우울은 중등도 이상의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혜순과 송미령(2013)의 연구에서는 금연 자기효능감, 흡연기간, 호기 일산화탄소 농도, 금단증상이 니코틴 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니코틴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채정화와 최연희(201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충동성, 부모와 친구의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직접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서경현과 서정열(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 일탈동조, 남성, 연령의 증가가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명식과 권정혜(2004)의 연구에서 약물관련 비합리적 신념, 알코올 중독 정도, 새로운 추구 등은 니코틴 의존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금연효능감과 음주거절 효능감은 니코틴 의존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흡연 행동이 니코틴에 대한 단순한 신체적 의존이라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심리적 이유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리적 자원 모델(psychological resources model)을 들 수 있다(서경현, 유제민, 2004). Edwards와 Warburton(1983)의 심리적 자원 모델은 흡연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이득을 명백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흡연을 중지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미영(1996)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의 하루 흡연량이 정신병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많다고 했다. 오순영, 김세인, 윤방부(1993)의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우울성향이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Eysenck(1980)는 흡연시작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동료의 압력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흡연습관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유전적인 성격기질과 관계가 깊다고 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니코틴의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 흡연동기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들은 또래집단의 영향, 성인모방심리 등을 언급하였다(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황성현, 2012). 한편, 심리적인 특성과 흡연동기를 밝힌 연구들도 있는데, 장영순(200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흡연동기 순서를 살펴봤을 때, 부정적 정서의 감소, 공격성 해소, 휴식 및 이완, 친구관계, 지적 호기심, 담배에 대한 흥미, 사회적 매력 순으로 나타났다. 유찬우와 김근향(2014)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 흡연자의 불안과 우울이 흡연동기와 상관을 나타냈으며, 우울은 흡연동기에 직접효과를 보였다.

성격특성과 흡연동기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apakyrizi와 Joseph(1998)의 연구에서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이 모든 흡연동기 요인과 상관이 있고, 특히 흡연동기 중 부적정서통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Spielberg과 Jacobs(1982)는 신경증적인 사람은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우 신경이 날카롭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흡연에 대한 기대감(동기)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영식 등(2003)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진 흡연청소년은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전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흡연동기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변인이 흡연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 중 정서조절곤란이 흡연동기를 예측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청소년의 흡연 동기는 외재적·내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흡연동기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대한 의존(갈망)이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임영식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동기의 모든 하위변인은 흡연갈망과 관련이 있었다. 이기학과 한중철(1996)의 연구에서는 흡연 욕구와 흡연량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량이 많은 흡연자일수록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고 높은 흡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흡연동기 각각의 변인들이 니코틴 의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니코틴의존을 예측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이 니코틴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니코틴 의존에 선행하면서도 정서조절곤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 중 흡연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흡연동기 각각의 변인이 니코틴 의존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정서조절곤란과 흡연동기를 직접 예측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조절곤란이 흡연동기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흡연동기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동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동기의 총점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흡연동기의 하위요인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그 중 어떠한 흡연동기가 매개를 하고, 각 매개효과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한 개의 매개변수만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개효과를 한꺼번에 추정하고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여러 가지 변인의 복잡한 인과관계와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흡연 동기 중

어떠한 흡연동기가 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 흡연에 대한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통제와 휴식 및 지루, 지적 자극, 사회적 매력, 습관적 흡연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정하였고, 그림 1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금연학교, 상담센터의 청소년들 657명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결측값이 많은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총 195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피검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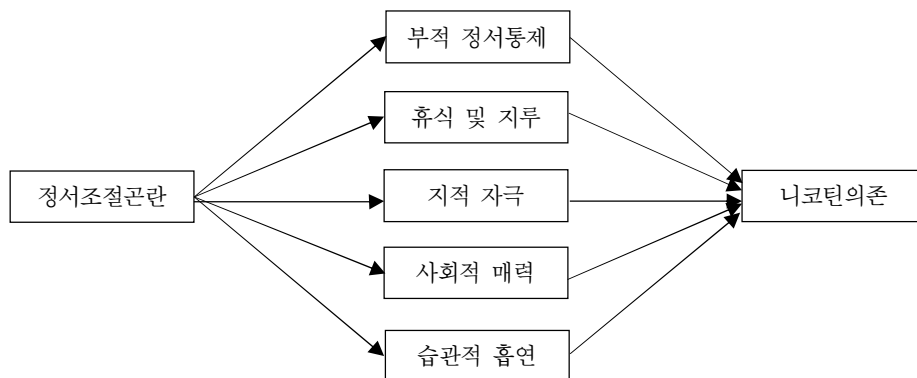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53	78.5
	여	42	21.5
연령	13	1	0.5
	14	6	3.1
	15	6	3.1
	16	29	14.9
	17	71	36.4
	18	60	30.8
	19	21	10.8
	20	1	0.5

을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설문 과정에 소비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피검자들은 피검자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이 척도는 정서조절의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한 Gratz와 Roemer(2004)가 정서조절의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판 DERS(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를 조용래(2007)가 우리말로 번역한 한국판 DERS를 사용하였다. 피검자들은 문항을 읽고 평소에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6개 문항 중 11개는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판

DERS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 는 .88이었다.

흡연동기 척도

흡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흡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Jacobs, Crane과 Russell(1983)이 개발한 흡연동기 척도(Smoking Motivation Questionnaire [SMQ])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종철, 오정자와 이기학(1995)이 제작한 흡연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1문항으로 흡연동기의 5가지 하위요인인 부적 정서통제, 휴식 및 지루함, 지적 자극, 사회적 매력, 습관적 흡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 α 는 .95 이었다. 그리고 5개의 개별 하위 요인의 Cronbach α 는 위에서 제시된 하위요인 척도 순서대로 .93, .88, .86, .71, .71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 척도

니코틴 의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FTND(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안희경 등, 200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10점까지이다. 3점 이하는 가벼운 의존, 4-6점은 중등도 의존, 7점 이상은 중증으로 평가한다. 척도 개발에서 맥박, 체온, 니코틴의 일차대사물질인 코티닌 수준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한 편이었다(서경현, 서정열, 2013). 개발 당시 FTQ(Fagerström Tolerance Questionnaire)

(Fagerström, 1978)의 Cronbach α 는 .51이었으며, 내적일관성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Heatherton Kozlowski, Frecker와 Fagerström(1991)은 FTND (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고안하였다. Heatherton 등(1991)의 연구에서 FTND의 Cronbach α 는 .61로서 FTQ에 비해 신뢰도가 약간 개선되었다. 한국어판 FTND의 Cronbach α 는 .69였고(안희경 등, 200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61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 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등은 SPSS 20.0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흡연동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16.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매우 쉽

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중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설명력과 모형의 간단하고 분명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는 .05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 라고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과의 관계에서 흡연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정서조절곤란	-							
2. 흡연동기	.34**	-						
3. 부적 정서통제	.26**	.90**	-					
4. 휴식 및 지루	.26**	.94**	.83**	-				
5. 지적 자극	.43**	.87**	.74**	.74**	-			
6. 사회적 매력	.24**	.78**	.55**	.72**	.59**	-		
7. 습관적 흡연	.33**	.73**	.54**	.68**	.55**	.64**	-	
8. 니코틴의존	.19**	.54**	.41**	.54**	.40**	.43**	.62**	-
M	2.50	2.23	2.63	2.42	2.13	1.89	1.91	.48
SD	.50	.65	.91	.76	.83	.50	.73	.25

** $p < .01$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조절곤란은 흡연동기($r = .342, p < .01$), 니코틴의존($r = .19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은 흡연동기의 5가지 하위요인인 부적 정서통제($r = .26, p < .01$), 휴식 및 지루($r = .26, p < .01$), 지적 자극($r = .43, p < .01$), 사회적 매력($r = .24, p < .01$), 습관적 흡연($r = .33,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흡연 동기는 니코틴의존($r = .54, p < .01$)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니코틴의존은 흡연동기의 하위요인인 부적 정서통제($r = .41, p < .01$), 휴식 및 지루($r = .54, p < .01$), 지적 자극($r = .40, p < .01$), 사회적 매력($r = .43, p < .01$), 습관적 흡연($r = .62, p < .01$)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경로분석

정서조절곤란, 흡연동기의 5가지 하위요인(부적 정서통제, 휴식 및 지루함, 지적 자극, 사회적 매력, 습관적 흡연)과 니코틴의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하였던 경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서조절곤란이 흡연동기의 하위요인들을 매개로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정된 경로모형은 정서조절곤란이 흡연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흡연 동기는 니코틴의존

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 적절한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고 있어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chi^2 = .012$ ($df = 1$), TLI= 1.034, CFI= 1.000, RMSEA= .000

기본모형에서 가정한 다섯 경로들의 경로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조절곤란이 부적 정서통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26, p < .001$), 정서조절곤란이 휴식 및 지루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27, p < .001$), 정서조절곤란이 지적 자극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43, p < .001$), 정서조절곤란이 사회적 매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24, p < .001$), 정서조절곤란이 습관적 흡연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 = .34, p < .001$)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휴식 및 지루가 니코틴의존으로 가는 경로($\beta = .34, p < .01$)가 적절하였으며, 습관적 흡연이 니코틴의존으로 가는 경로도 적절하였다($\beta = .48, p < .001$). 그러나 부적 정서통제가 니코틴의존으로 가는 경로, 지적 자극이 니코틴의존으로 가는 경로, 사회적 매력이 니코틴의존으로 가는 경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이이면 중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Kline, 1998). 이를 바탕으로 각 경로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직접경로로서 정서조절곤란이 휴식 및 지루에 중간정도의 영향(.27)을 미치고 있고, 휴식 및 지루도 니코틴의존에 중간정도의 영향(.34)을

표 3. 정서조절곤란, 흡연동기, 니코틴의존의 경로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012	1	1.034	1.000	.000(.000~.077)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t
정서조절곤란	→ 부적 정서통제	.47	.26	.13	3.70***
정서조절곤란	→ 휴식 및 지루	.41	.27	.11	3.87***
정서조절곤란	→ 지적 자극	.71	.43	.11	6.59***
정서조절곤란	→ 사회적 매력	.24	.24	.07	3.44***
정서조절곤란	→ 습관적 흡연	.49	.34	.10	4.98***
부적 정서통제	→ 니코틴의존	-.02	-.07	.03	-.67
휴식 및 지루	→ 니코틴의존	.12	.34	.04	2.61**
지적 자극	→ 니코틴의존	-.01	-.02	.03	-.19
사회적 매력	→ 니코틴의존	-.04	-.07	.04	-.79
습관적 흡연	→ 니코틴의존	.17	.48	.03	5.99***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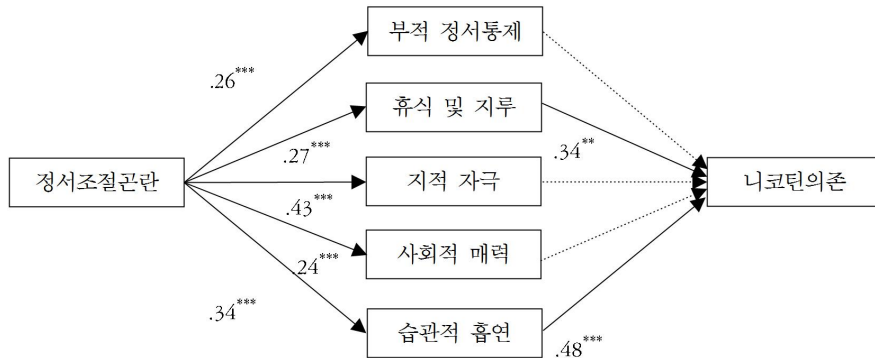


그림 2. 경로모형

** $p < .01$, *** $p < .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이 습관적 흡연에 중간정도의 영향(.34)을 미쳤고, 습관적 흡연도 니코틴의존에 중간정도의 영향(.48)을 미치고 있었다.

경로모형의 검증을 통해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휴식 및 지루와 습관적 흡연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식 및 지루의 매개효과가 $z = 2.167, p < .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습관적 흡연의 매개효과는 $z = 3.826,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니코틴의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흡연 동기는 측정도구의 5 가지 하위요인을 모두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인들 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은 흡연동기의 하위요인인 휴식 및 지루와 습관적 흡연을 매개로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곤란, 흡연동기, 흡연동기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니코틴의존의 상관을 분석해 보았을 때, 모든 변인들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흡연동기와 니코틴의존의 유의한 상관은 임영식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흡연동기의 하위요인 중 휴식 및 지루함과 습관적 흡연만이 니코틴의존과 관련성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니코틴의존과 흡연동기의 하위요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았던 것은 습관적 흡연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휴식 및 지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련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상관관계의 계수를 살펴봤을 때에도 상관관계의 강도는 낮았다. 이는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것 보다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

서 부적 정서통제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서조절곤란이 부적 정서통제를 예측하나, 부적 정서통제는 니코틴의존을 예측하지 못했다.

Fritch(1971)는 흡연 상황 이론에서 낮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과 높은 각성 수준 상황 조건을 구분하였고, 낮은 각성 수준 상황은 지루하거나 피곤한 상황, 높은 각성 수준 상황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적 정서는 높은 각성 수준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통제가 니코틴의존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추후 부적 정서통제와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휴식 및 지루는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니코틴의존에 잠재적인 효과가 있고, 이 과정에서 휴식 및 지루함이 직접적으로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약물학적 요인은 흡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Fritch, 1971; Tollins, 1986). 니코틴이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신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 흡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이기학, 한종철, 1996). 또한 흡연자들은 지루하거나 피곤한 상황(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며, 실제 흡연 행동을 하게 된다(Fritch, 1971). 따라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분을 가라앉히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흡연을 통해 지루한 상황을 없애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싶을 때 더욱 담배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6).

Eysenck(1981)의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형에 의하면, 남성들은 더 외향적인 성향이 많으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남성의 경우에 자극 추구 동기에 의해 흡연을 함으로써 지루한 상황(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흡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그리고 이기학과 한종철(1996)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낮은 각성 수준 상황에서 더욱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일단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 흡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자극이 없이 단순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가함이나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흡연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흡연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극이 부족하여 매우 권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와 같은 권태로움을 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자극 추구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지적 자극’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지적 자극이 생기는 경우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기보다 지적 자극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니코틴의존의 상관을 연구한 서경현과 서정열(2013)의 연구에서는 낮은 학업성취도가 니코틴 의존과 아무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학업성취도는 자극추구를 위한 흡연이나 충동적 흡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인 자극을 추구하거

나 추구하지 않는 등의 지적인 호기심은 실험적 흡연의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흡연을 지속시키기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사회적 매력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전 조사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흡연 청소년들은 사회적 매력이 초기 흡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매력이 니코틴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매력은 흡연을 시작할 당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흡연을 유지시키는 원인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담배가 타인에게 매력을 유발하는 도구로 인식되기보다, 혐오자극에 가깝고, 흡연의 부정적인 결과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금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습관적 흡연은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니코틴의존에 잠재적인 효과가 있고, 이 과정에서 습관적 흡연이 직접적으로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학과 한종철(1996)은 최초로 흡연을 시작한 이후 대인 관계적 요소를 통해 실험적인 흡연을 하게 되며, 지속적인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이 하나의 습관 행동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습관이 된 흡연행동은 자연스럽게 니코틴의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이기학, 한종철, 1996) 습

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내/외적 압력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보면, 오히려 니코틴의존을 가지고 있는 흡연자가 금연을 하려고 할 때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정서조절곤란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중 흡연과의 관련성을 밝힌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정서조절곤란이 어떻게 니코틴의존에 가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곤란과 니코틴의존의 관계에서 습관적 흡연과 휴식 및 지루함의 두 요인만 매개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흡연자들의 니코틴의존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정서조절곤란에 개입하지 않고, 습관적 흡연과 휴식 및 지루함에 개입하기만 해도 니코틴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수도권 청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구내용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가능한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문항에 대한 해석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다. 학교에서 설문이 시행된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염려 때문에 흡연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급우들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관찰법 및 면접법,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 흡연자들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니코틴의존 청소년들로 구성된 임상집단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 의해 측정된 니코틴의존 정도가 전반적으로 하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니코틴의존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로는 청소년의 금연치료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루한 상황 및 습관이 지속적인 흡연의 원인이라고 밝혔고, 김지희와 이영호(2014)는 흡연에 대한 갈망과 금단 증상이 높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통해 금연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고려하여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흡연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흡연을 하고자 하는 순간을 포착한 후, 흡연 외의 자신에게 맞는 대체 방법을 실시한 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 흡연자의 습관을 교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명식, 권정혜 (2004).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한 인지매개 모델의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297-312.
- 김민아, 권경인 (2008).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정

- 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6(1), 15-32.
-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 김지희, 이영호 (2014). 흡연갈망과 금단증상이 금연유지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금연효과 지각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53-269.
- 김진곤, 서지영, 김선미, 이소진, 이철순, 차보석,... 박철수 (2012).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기분증상이 니코틴 의존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111-119.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8).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실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 문영주, 좌현숙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 353-379.
-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73-486.
- 보건복지부 (2017. 12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17&confirmNo=117058&kosisYn=Y> 에서 인출.
- 서경현, 서정열 (2013). 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567-578.
- 서경현, 유제민 (2004). 장기적 금연유지 요인 탐색: 입원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2년 간 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03-922.
- 송태민, 이주열, 안지영 (2010). 금연 실천과 니코틴 의존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4), 123-129.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안희경, 이화진, 정도식, 이선영, 김성원, 강재연 (2002). 한국어판 니코틴 의존도 설문 도구(FTQ와 FTND)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23(8), 999-1008
- 연미영 (1996).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 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51-158.
- 오순영, 김세인, 윤방부 (1993). 흡연자의 우울 성향과 니코틴 의존도. *가정의학회지*, 14(2), 79-87.
- 유찬우, 김근향 (2014).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걱정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47-77.
- 이기학, 한중철 (1996). 대학생 흡연자의 각성 수준과 상황에 따른 흡연 욕구 및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127.
- 이상균 (2001).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6(1), 77-94.
- 이원화, 이지영 (2011).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수준과 정서조절방략의 사용: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 연구. *인간이해*, 32(2), 195-212.
- 이현주, 하은혜 (2016). 중학생의 정서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1), 35-51.

- 이혜순, 송미령 (2013). 금연준비단계 대학생의 니코틴의존도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20(4), 429-437.
- 임영식, 이장한, 김선일, 함진선 (2003). 청소년의 흡연행동: 성격유형, 흡연동기, 갈망, 니코틴의존. *청소년학연구*, 10(3), 461-479.
- 임진현, 이훈진 (2006).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4), 1141-1151.
- 장영순 (2002). 고등학생의 흡연동기와 담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와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제14판)*. 서울: 박영사.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채정화, 최연희 (2015). 흡연중학생의 니코틴 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3), 2109-2116.
- 최성환, 최해연 (2014).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833-852.
- 한선화, 현은강 (2006).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전략 및 자기통제력. *아동학회지*, 27(6), 1-11.
- 한중철, 오정자, 이기학 (1995). 한국인의 연령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흡연 행동 분석. *흡연위생연구*, 110-198.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2). *청소년흡연실태조사 결과*.
- 황성현 (2012).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19-38.
- 홍경화, 홍혜영 (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91-31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243-26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Edwards, J. A., & Warburton, D. M. (1983). Smoking, Nicotine, and Electrodermal Activity. *Pharmacology Therapy*, 19, 147-164.
- Ernst, M., Pine, D. S., & Hardin, M. (2006). Triadic model of the neurobiology of motivated behavior in adolescence. *Psychological Medicine*, 36(3), 299-312.
- Eysenck, H. J. (1980). *The Causes and Effects of Smoking*. London: Maurice Temple Smith. 334-358.
- Eysenck, H. J. (1981). *A model for personality*. New York: Springer.
- Fagerström, K. O. (1978). Measuring degree of physical dependency to tobacco smoking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ddictive Behavior*, 3, 235-241.
- Frith, C. D. (1971). Smo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the smoker's immediate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73-78.
- Garber, J. & Dodfe, K. (1991). The development

-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efski, N., Kraaij, V., &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 619-631.
- Gladwin, T. E., Figner, B., Crone, E. A., & Wiers, R. W. (2011). Addiction, adolescence, and the integration of control and motivation.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4), 364-376.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41-54.
- Greenberg, J. J.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and Emotion*, 13(5), 551-573.
- Heatherton, T. F., Kozlowski, L. T., Frecker, R. C., & Fagerström, K. O. (1991). The Fagerströ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A revision of the Fagerström tolerance questionnair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 1119-1127.
- Hu, L.,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ing, A. M., & Werner, K. H. (2004).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In P. Philippot, & R. S. Feldman(Ed). *The regulation of emotion*. 359-385.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9, 544-554.
- Papakyriazi, E., & Joseph, S.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mong smokers and their association with smoking motivation, social skill deficit, and self-efficacy to qui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621-626.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pielberger, C. D., Jacobs, G. A. (1982). Personality smok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396-403.
- Spielberger, C. D., Jacobs, G. A., Crane, R. S., & Russell, S. F. (1983).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moking habits and the smo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 53-69.
- Tollins, R. D. (1986). *Smoking and society: Toward a more balanced assessment*. D. C. Helath & Company/Lexington, Massachusetts.
- Torabi, M. R & Bailey, W. J (1993). Cigarette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smoking as a predictor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of the gateway drug effect, *Journal of
School Health*, 63(7), 302-306.

원고접수일 : 2018. 1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2. 11.
게재결정일 : 2019. 02. 11.

Effect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on Nicotine Dependence and Smoking Motivation: Focused on Adolescent Smokers

Gyu-young Lim

Jin-bok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moking Motiva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Nicotine Dependence to adolescent smokers. All 5 sub factors of Smoking Motivation Questionnaire(SMQ) used as a mediating factors. For this study, a total of 195 adolescent smokers completed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on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moking Motivation, Nicotine Depende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Need for Pleasurable Relaxation and Habitual Smok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Nicotine Dependence. However, Need for Negative Affect Control, Need for Mental Activity, Need for Social Appeal did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nd Nicotine Depend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ffect Nicotine Dependence indirect, through Need for Pleasurable Relaxation and Habitual Smoking.

Key words : Adolescent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moking Motivation, Nicotine Dependence